

## 서울교통공사

##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 참여

다낭시 교통국과 시스템 개발 등 상호 협력

베트남 다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에 국내 기술이 도입된다.

서울교통공사가 베트남 다낭시 교통국과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낭시의 첫 도시철도 건설, 교통시스템 개발, 도시철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협약식은 16일 오후 3시(베트남 현지 시간) 베트남 다낭시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다낭시 인민위원회 응웬 응옥 뚜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낭시 교통국, 기획투자국, 건설국 관계자 간 도시철도 건설 실무 협의회도 진행했다. 공사는 도시철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 기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다낭시 대중교통 기본 계획 검토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병중 기자 joker@

&gt;&gt; 1면 '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에...'서 계속

## 새 특약 도입에 추가 개선 기대

이 외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사 역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를 이유로 작년 하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잇따라 인하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지난해 8월 21일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1.6%, 1.5%씩 내렸다. DB손보 역시 같은달 16일 개인용 0.8%, 업무용 1.3% 등 자가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0%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앞서 같은해 3월과 6월 각각 0.8%·0.7%, 8월 0.8% 등 총 세 차례 인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외제차량 렌트비 현실화, 경미 손상 수리비 지급기준 신설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제히 개선됐다"며 "이달 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향후 손해율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여름과 겨울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업계 실적이 기대만큼 좋은 편은 아니다"며 "다만 지난해 손해율 개선세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따른 손보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한줄 News

## 정책·사회

▲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 총수로는 첫 검찰 소환이다.

▲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 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정부가 농식품분야 보안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산업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각각 QLED TV와 올레드(OLED) TV를 설치한다.

▲ 기존 미니밴의 단점을 보완하고 탑승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혼다**가 올 뉴 오딧세이를 직접 체험했다.

## 금융·부동산

▲ 정부가 올해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돕는다.

▲ 올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지원주택은 과거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 유통

▲ **유통업계**가 쇼핑물 욕상에 체육시설, 체험형 매장, 키즈카페 등을 내세우며 집객효과를 끌어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 CJ 오쇼핑·CJ E&amp;M 전격 합병

## 융복합 미디어-커머스시장 선제 공략

1:0.41 비율로 합병 결의  
합병사 올 매출 4.4兆 목표  
인프라 공유로 경쟁력 강화

CJ오쇼핑과 CJ E&M이 합병한다.

CJ오쇼핑과 CJ E&M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1:0.41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는 오는 6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글로벌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와 커머스가 융복합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미디어와 커머스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CJ오쇼핑과 CJ

E&M의 사업역량을 집약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융복합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글로벌 인프라를 상호 공유하면 글로벌사업은 즉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CJ오쇼핑은 현재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현지 주요 미디어 기업과 합작 관계를 맺고 있고 CJ E&M은 베트남, 태국, 터키 등에 사업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상대회사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콘텐츠 IP를 활용한 커머스를 선보이거나 콘텐츠 합작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CJ오쇼핑의 상품 기획 역량과 CJ E&M의 콘텐츠 역량이 더해지면 기존 사업도 경쟁력이 강화된다.

CJ오쇼핑은 지난해부터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한 소비층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들과 손잡고 웹드라마와 예능 형식의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정체에 빠진 흡수사업의 돌파구를 TV 밖 차별화된 콘텐츠에서 찾으려는 시도다. CJ E&M 역시 콘텐츠 저작권(IP)을 활용한 수익 모델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기존 사업 시너지뿐 아니라 융복합 신사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CJ E&M이 보유한 TV, Mobile, SNS 등의 이용자행태분석데이터와 CJ오쇼핑이 보유한 Commerce Big Data, Trend Data를 결합해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와 브랜드 상품을 VR, AR, Voice UX를 통

해 큐레이션함으로써 새로운 고객 경험과 접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CJ오쇼핑과 CJ E&M 양사는 합병회사의 올해 매출 목표 4조4000억원, 영업이익 3500억원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2021년까지 전체 매출을 연평균 15.1% 성장시킬 계획이다.

CJ E&M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며 "라이프스타일과 콘텐츠, 디지털플랫폼을 결합해 최고의 경험과 즐거움을 주는 글로벌 융복합 미디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상생은 가맹본부의 ‘시혜’ 아닌 ‘생존’ 문제”

## 김상조 공정위원장

파리바게트 등 가맹점 6곳 방문  
최저임금 상승 따른 애로 청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단 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아람동 상가지역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 6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배포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



17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람동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방문,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되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협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

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금년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서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초에 개정해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법 이행평가 방향 등에 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중소 사업자 진입 막은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ISO의 외곽된 정보 공유 등  
2014년부터 독점 위해 위반

CT, MRI 장비 업계에서 4년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지멘스가 국내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고 시장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스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신규 진입한 중소기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멘스는 CT, MRI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

준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장비를 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가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다.

보건복지부가 CT·MRI 수가를 낮추면서 예산이 줄어 더 싼 값에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병원이 늘어나자 지멘스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위법행위를 시작했다.

지멘스는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차별을 두면서 자사와 거래를 하도록 했다.

CT와 MRI의 안전관리나 유지보수에는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일종의 아이디어인 서비스가 필수적이

다. 자사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고급 권한이 포함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즉시 제공했다. 그러나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권한이 낮은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 이마저도 판매 즉시 제공하지도 않고 최대 25일 동안 시간을 끌기도 했다. 한편 지멘스는 미국에서는 서비스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지멘스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병원에 공문을 통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거래하지 않고 ISO서비스 이용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ISO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자사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외곽된 정보를 공유했다.

이 사건 행위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또 ISO의 가격경쟁력이 없어지고, ISO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으며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멘스에 명령했다.

공정위는 병원이 필수적인 서비스키를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이번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MRI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가 독점하던 유지보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와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